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에서의 교수 수업 공개에 대한 실천적 고찰* - C교육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혜¹, 류상희², 김근호³, 김수혜⁴, 방신웅⁵, 이재용⁶, 정현수⁷

《 요 약 》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교수 6명이 교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강의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탐색한 사례 연구이다. C교육대학교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문화가 있어 왔다. 2018년부터는 교수의 수업 공개와 관련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도 6명의 교수가 최소 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한 후 소감을 공유하는 개별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함께하는 집담회 형식의 사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대학의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공개된 수업은 모두 온라인 수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토론 수업과 실기 수업, PBL 수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료 교수들 간의 수업 공개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고,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육대학교의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주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대학에서의 수업 공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교사교육, 수업 전문성, 수업 공개, 수업 성찰, 온라인 수업

* 이 논문은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발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CJE2020D025) 2020년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antikka@cje.ac.kr (주저자)
2.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ryush1@cje.ac.kr (공동저자)
3.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kgsmv@cje.ac.kr (공동저자)
4.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cnsmp@cje.ac.kr (공동저자)
5.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swbang@cje.ac.kr (공동저자)
6.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educounsel@cje.ac.kr (공동저자)
7.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 hsjung@cje.ac.kr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 전문성 연수가 일방향적인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사학습공동체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심영택 외, 2019).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교사학습공동체를 연구하는 연구물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하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집체(集體) 연수, 멘토링, 수업 공개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형태의 연수가 진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업 공개일 것이다. 수업 공개는, 교수자가 참관자에게 자신의 수업을 개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정통적인 교수 전문성 신장 방법 중 하나이다. 여느 초임 교사라면 한 번 정도는 지역교육청 장학사 방문 공개 수업을 준비해 보았을 것이다. 동료 교사, 인근 학교 교사, 학교 관리자, 장학사까지 함께하는 공개 수업은 초임 교사는 물론 경력 교사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이를 준비해 본 교사라면 비단 선행연구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부담되고 떨리는지 알 것이다(김영한, 오세웅, 2003).

교사에게 수업은 가장 본질적인 활동으로 최우선시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일상다반사이기도 하다. 수업은 그 교사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되고,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문율이 존재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교직의 문화를 계란판이나 바둑판에, 교실을 철옹성(鐵甕城)에 비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치부(恥部)를 보이는 것 같아 꺼리게 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수자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수업 공개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초석이라는 사실에 비하여 이를 연구한 결과물이 많지 않은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송하인, 2020; 엄훈, 2000; 한영욱, 김미숙, 2020 등). 그나마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위안거리이다.

학교 현장의 눈을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돌리면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도 수업 공개는 관심 밖의 일이다. 예비교사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수자가 수업 공개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렇기 때문인지 연구물로서 이를 만나기란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연구 활동을 제외하면 학교급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교수에게도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자신의 수업¹⁾을 개선하는 것 또한 그러한 노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활동을 겸해야 하는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과 서로의 학문적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수 사회의 문화가 수업에 대한 독립성을 절대시하는 관행을 더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 초·중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딱딱한 수업 일정 역시 수업 공개를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C교육대학교는 교수들 간의 수업 공개와 관련한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교육 영역의 선택 지표에 ‘강의 공개’를 포함시켜 수업 공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이라는 주제로 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김동원, 황연주, 남현욱, 류미혜, 2018; 김미혜 외, 2019; 김미혜 외, 2021), 2019년과 2020년에는 정책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공개 경험을 나누는 교수법 개선 세미나를 실시하여 수업 공개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은 교수들의 수업 공개와 참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C교육대학교에서 2020년에 진행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원 양성대학교에서의 교수 수업 공개를 실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C교육대학교에서 6명의 교수가 각자의 강의를 공개하고 참관한 경험, 또 이를 바탕으로 사후에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러한 경험이 교사교육자 자신의 성장과 예비 교사 교육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가 향후 교사교육자의 전문성 신장 연구가 확산되어 나가는 데 있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초등학교원 양성대학교의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공개의 경험을 성찰한 과정과 그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질적 사례

1)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는 ‘수업’이라는 용어를, 대학교에서는 ‘강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주로 다루는 대학교의 ‘강의’ 또한 교수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라는 학교급의 차이를 강조하는 ‘강의’가 아닌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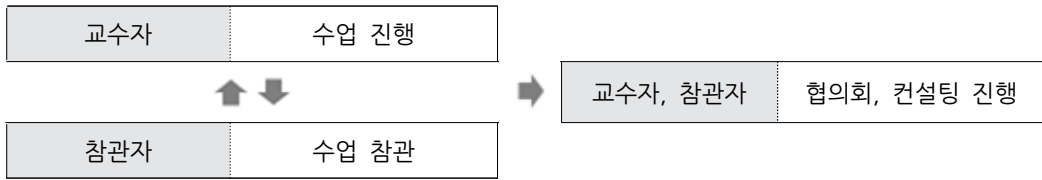
연구에 해당한다. 사례 연구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source)로부터 얻은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해 하나 또는 여러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인데(Creswell, 2007), 이러한 방법이 C교육대학교의 교수 수업 공개 사례가 초등학교원 양성대학교의 수업 문화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는 C교육대학교의 2020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에 참여한 교수 6명의 수업 공개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수업 공개 및 연구 참여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했다. 공모 당시 수업 공개의 주제는 학습자 중심(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수업 운영, 창의·혁신적인 새로운 교수·학습 운영, 기자재 및 교재를 활용한 수업 운영, 코로나 19의 유행에 따른 온라인 강의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제시되었고 기타 자유 주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수업 공개는 7명의 연구 참여자 중 연구 책임자를 제외한 6명이 최소 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여 총 6회 실시되었으며 공개된 수업의 기본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공개 수업 정보

강좌명	강의주제	담당교수	일시	장소
실과교수학습론	실과 수업설계	A	2020. 10. 16. 금. 12:11-23:59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철학의 이해	PBL 수업 하나. 공자의 현대적 의미	B	2020. 11. 18. 수. 16:10-17:00	온라인 (Zoom 실시간)
초등교사론	까마귀 소년과 이소베 선생님: 행동 너머를 바라보기	C	2020. 11. 16. 월. ~12. 11. 금.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창작실기 3	동요 창작하기	D	2020. 9. 24. 목. 11:10-12:00	온라인 (Zoom 실시간)
체조경기	팀프로젝트(PBL) 결과 발표	E	2020. 12. 7. 월. 14:10-16:00	온라인 (Zoom 외 실시간)
체육실기 II (배드민턴)	스윙의 메커니즘과 올바른 난타법	F	2020. 10. 12. 월. ~ 12. 15. 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각각의 수업 공개는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수업 공개 진행 순서

2학기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7명의 연구진 모두가 참여해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C교육대학교의 수업 문화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의 세미나를 <표 2>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표 2> 교수법 개선 세미나의 세부 일정

일시	장소	주제	발제	참석 대상
2020. 12. 17. 목. 14:10-16:00	온라인 (Zoom 실시간)	대학에서의 수업 공개와 성찰	“2020년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 연구팀	전체 교수 및 강사

사례 연구를 위해 수업 공개에 참여한 교수 6명의 공개 수업, 수업 후 동료 교수와의 협의회, 교수법 개선 세미나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공개 수업과 관련해서는 강의계획서와 강의 개요, 강의 자료, 온라인 수업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업 후 동료 교수와의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수업을 공개한 교수자가 기록한 협의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경우에는 이메일 내용을 참고하였다. 교수법 개선 세미나를 위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 세미나 내용, 세미나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지 등도 자료로 수집해 분석하였다.

III. C교육대학교 교수 수업 공개의 실제와 성찰

이 장에서는 6건의 공개 수업 각각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설계, 실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수업을 참관한 동료 교수와의 사후 협의회 및 세미나를 모두 마친 후에 참여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각 절은 수업을 공개한 교수의 시점에서 작성되었으며

동료 교수들과의 협의 및 교차 분석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였다.

1. A교수의 수업과 성찰: 〈실과교수학습론〉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실과교수학습론〉은 실과교육의 목표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과 지도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실과 지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 실행을 위한 수업 설계를 해 보도록 하고 수업 과정을 분석하는 성찰 활동을 통해 교육 실천가로서의 창의성과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개된 수업은 5주차 수업으로서 수업의 주제는 “실과 수업설계”이고 주요 내용은 수업설계, 수업설계의 배경과 의미, 백워드 수업설계, 수업설계 템플릿을 활용한 수업설계 방안 탐색 등이다. 수업설계는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이 이론적 접근보다 중요한 주제여서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 중심의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수업설계의 이론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수업설계와 관련된 이론은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대면 수업 이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하고 수업설계를 실행하는 활동은 대면 수업에서 진행하는 수업 운영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수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설계해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설계 관련 실습과 피드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수업설계를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모듈별 토의·토론을 통한 실습이 효과적이라 여겨지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모듈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이 수업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으므로 수업 공개 또한 LMS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동영상 강의는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참관하는 인원수가 저조했다. 이는 수업을 참관하는 이유는 특정 과목의 내용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방법, 수업

설계의 형태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데 비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수업은 주로 강의식이어서 오히려 참관하고자 하는 교수들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업을 참관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도움이 되는 수업일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었으나 공개 후에는 왠지 뿌듯하고 보람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사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수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수업설계의 실행과 피드백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제공된 템플릿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설계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과제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 활동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이어서 이론을 설명하는 데만 그친다면 수업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자기 것으로 내면화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회의실을 활용한 모듈별 수업설계의 실행, 수업설계를 적용한 수업 시연의 과제 제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한 토론 수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업설계는 개별 활동으로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화상 모임을 통한 자료 및 아이디어 공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B교수의 수업과 성찰: <철학의 이해>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철학의 이해>는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철학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동·서양철학의 전반적 흐름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양철학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고와 삶의 의미를 강의하되, 그와 관련한 서양철학을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강의에서는 동양철학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 유가, 도가, 법가 등을 비교·검토하고, 대표 철학자들의 철학을 개괄하면서 동양철학의 지성사적 지형도를 그린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동양철학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국 선진시대 제자백가들의 철학을 사적(史的)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공개된 강의는 12주차 수업으로서 수업의 주제는 “PBL 수업 하나. 공자와 묵자의 현대적 의미”이고 교수법 차원에서 PBL이 적용되었으며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가 동양철학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업으로 융복합 강의 차시를 통해 초등 예비교사들이 그림책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 깊이 읽기가 가능한 토론식 수업으로 철학적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이 수업의 특징이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이 수업은 Zoom을 통한 실시간 공개 강의로 진행되어 애초에 의도했던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때 웹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단계적 토론 방식을 모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강의자와 수강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플랫폼(Communication platform)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방법들을 개선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활용한 양수점장의 강의로 개발하고자 한다.

3. C교수의 수업과 성찰: 〈초등교사론〉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초등교사론〉 강좌는 초등 교사로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교사론〉은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며, 이론적 탐구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장 기반의 실천적 탐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 교사로서 성찰을 시도할 수 있는 주제를 각 주차별로 제시하고 있다. 각 주차별 주제가 모여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차별로 제시된 키워드 12개를 조합하면 ‘TEACH’라는 단어가 완성된다.

〈초등교사론〉은 4학년 선택 강좌이며, 2020년 2학기에는 89명 3개 반으로 운영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LMS 강의 영상을 수강한 후 성찰 일기를 작성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초등 교사와 관련된 그림책, 영화, 다큐멘터리, 강연,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였다. 수강생은 강의 수강 후에 각자의 생각을 성찰 일기로 정리하여 토론 게시판에 공유하였다.

공개된 강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동 너머를 바라보기”를 주제로 한 5주차 수업이다. 이 강의의 키워드는 ‘Emotion’이었고, 강의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그림책 『까마귀 소년』, 책 『감정코칭, 아들의 감정수업』, 영화 〈아바타〉 등이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야시마 타로의 『까마귀 소년』을 읽어 주었다. 『까마귀 소년』은 시골 마을에서 땅꼬마로 불리는 소년이 6학년 때 이소베 선생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소년은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였는데, 이소베 선생님은 아이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다. 특히 이소베 선생님은 아이의 감정 깊은 곳까지 살피고 바라봐 줌으로써 소년과 소년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다. 이 수업에서는 이소베 선생님을 통해서 초등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고 초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속 감정을 나누면서 배우는 감정 수업 책과 수업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였다. 감정 수업 사례는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놀이를 감정 공유하기로 재구성하였다.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놀이를 활용하여 감정 수업을 시도한 사례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감정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교사가 아이들의 보이는 행동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문제 아동이 아닌 단지 행동 문제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행동 문제 너머에 존재하는 아이의 진심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등 교사로서 나의 눈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늘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행동을 소홀함 없이 구부려 살피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초등교사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4학년과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4학년의 상황과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을 찾고 싶었다. 강의에 관한 과제 부담을 줄이되, 강의 자체에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각 주차별 강의를 듣고 성찰 일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성찰 일기는 각 강의 주제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자 자유롭게 정리해서 토론 게시판에 공유하도록 했다.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토론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서로의 성찰 일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나마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로의 성찰 일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많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성찰 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적어 주었다.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지만 코로나 19 펜데믹 속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4학년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적 시도일 수 있다. 향후 코로나 이후에 블렌디드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교사론> 강좌는 수강생이 초등학교 현장 기반의 실천적 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더라도 현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등교사론> 강의를 담당 교수와 현장 초등 교사의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재 강의는 키워드 기반의 모듈형 강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역량을 갖춘 현장 교사와 팀티칭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티칭 기반의 <초등교사론> 강좌 개발은 초등학교 현장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D교수의 수업과 성찰: <창작실기 3>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창작실기 3> 강좌는 음악교육학과 3학년 심화전공 필수과목으로 공통 선택 및 필수 기본 음악이론을 배우고 익힌 후, 초등학교 음악 교과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며 음악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이론 능력 및 교실 음악 수업의 교수 방법 적용을 위해 창작의 실재를 경험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창작 작품 발표를 학생들 간의 협동과 협력을 통해 구현하고, 컴퓨터 음악공학 기반의 교육 훈련을 위한 사보 프로그램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합적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작실기 3> 수업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서로의 소리와 악기 편성 등의 다양한 예시와 실습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Zoom 실시간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라이브 실습 세션의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공개된 수업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시’ 선정과 ‘시’ 내용 및 형식 분석을 통하여 가사를 기반으로 한 음악적 형식과 박자 등에 대한 음악 요소적 세부 계획을 세우고 <동요 창작하기>를 위한 1단계 작업 진행 중인 학생 개개인별 작품에 대한 레슨을 진행하였다. 레슨은 그룹별로 나누어 서로의 작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서로의 피드백 및 교수자의 피드백과 레슨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2단계 창작 작업을 준비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창작실기 3> 수업에는 B교수와 F교수가 참관했다. “동시 분석-박자-음악의 형식과 창의적 변형”을 다룬다는 공개 강의 개요에 대해 동시가가사가 되고 학생들이 만들어 낸 박자와 음악을 배경으로 표현 활동을 하면 국어-음악-체육의 융·복합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강의에 참석한 F교수의 수업 분석과 향후 수업 개선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음악 교과와 다양한 교과목과의 융·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비대면 강의 내에서의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주는 방식 등의 유연함에 대한 참관 교수의 컨설팅을 통해 비대면 강의 내의 교수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소통 방식이 수업의 흐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E교수의 수업과 성찰: <체조경기>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체조경기>는 초등 체조 활동의 내용 지식과 교수 지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체조 활동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할 수 있는 체조 활동 수업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동작 도전 활동 영역 중 체조 활동 기능에 대한 심화 숙달과 더불어 초등 교사로서 동작 도전 활동(체조 활동)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PBL 학습 모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강의는 체육 심화 4학년 전공 교과이다.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에 같은 교과목으로 2시간 강의를 이수하였으며 1학기의 강의 맥락과 연장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면 수업의 운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기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차시를 PBL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PBL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PBL의 정의와 절차, 연습문제 등을 1차시를 할애하여 교육하고 교수자가 개발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팀 과제로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2학기에는 1학기와는 달리 학습자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상해 보고 이를 PBL에 적합한 문제 상황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팀별로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향후 초등 교사로 활동하면서 동작 도전 활동 관련 수업을 운영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PBL 학습을 위한 문제 상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기 위해 강의 내용 중 PBL 문제 개발 과정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별로 PBL 문제 상황을 개발해 보도록 하였다.

공개된 수업은 15차시의 PBL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PBL 과제인 “다리 벌려 뽀뽀 넘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한 후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 공유를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아래 그림은 학생들이 발표에서 다룬 PBL 문제 상황이다.

PBL 문제_B

문제명: 다리 벌려 뽀뽀 넘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수·학습 방법

학습목표: 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뽀뽀를 넘을 수 있다.
② 안전하게 뽀뽀를 넘을 수 있다.
③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

4학년 학생들의 체육 수업시간이다. A교사는 24명의 학생들과 ‘다리 벌려 뽀뽀 넘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할 것 같긴 한데, A교사는 아직 개별 학생들의 뽀뽀 수행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뽀뽀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싶다. 동시에 학생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하려고 한다.

1. A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3. 1, 2 번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안전에 유의하며 활동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1

[그림 2] <체조경기> 공개 수업의 PBL 문제 상황

2개 팀이 같은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수업은 Zoom에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중간에 Google Meet로 이동하여 진행하였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이 수업에는 B교수와 F교수가 참관했으며, 특히 체육교육 전공자인 F교수는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직접 피드백을 해 주어 학생들이 보다 발전적인 수업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관점뿐 아니라 여러 교수로부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수업 공개가 갖는 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체조경기〉는 실기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위한 대안으로서 PBL이라는 수업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적인 수업 운영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공개되었다는 점은 교수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향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 상황에서 수업을 공개한다면 학생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에 국한되지 않고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동료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교과목 담당 교수 개인의 수업 개선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F교수의 수업과 성찰: 〈체육실기Ⅱ-배드민턴〉

가. 공개 수업의 실제

〈체육실기Ⅱ-배드민턴〉 강의는 2학년 선택 교양 강의이다. 2020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실기강좌임에도 불구하고 8주 동안 온라인(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4주간은 대면-접촉 형태로 진행되었다. 4주 동안(10월 19일~11월 13일)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총 8차시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배드민턴은 종목 특성과 체육관의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여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스포츠이다. 급격한 일반 동호회의 증가와 더불어 평생 스포츠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어 예비·현장 교사를 포함한 초등학생의 관심과 흥미가 높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강의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의로 동기 부여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배드민턴을 포함한 일반적인 체육(교양) 강의는 실기 기능을 숙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주요 기술의 반복적 수행을 통하여 기능을 숙달하고 경기 규칙을 숙지하며, 많은 게임을 실시하면서 능숙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대학교에서의 모든 강의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일반 대학, 일반 실기 강의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이에 이 강의에서는 수시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상황을 예시로 활용하였고 초등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법을 인지적 차원에서나마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배드민턴을 포함한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감상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였다.

배드민턴의 장비, 코트 규격, 경기 규칙 등 스포츠를 문화로 접근하기 위한 온라인 영상 강의를 1차시에 실시하였으며, 배드민턴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그를 가르치는 데에 적절한 활동을 안내했다. 대면 강의를 실시하기 직전 주에는 온라인 강의 중 안내한 다양한 자세와 라켓 올바르게 쥐기를 실시하고 이를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공개된 수업은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온라인 영상에서 안내된 내용을 도우미 학생을 통해 실제로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차시이다. 준비운동, 가벼운 난타, 스윙의 매커니즘, 스윙 시작 직전 동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교육대학교의 체육관은 총 6면의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에 위치한 2면의 코트는 복식 경기만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체육 수업의 전 종목에 따른 수업 환경을 사전에 이해하고 원활히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 차시의 복습을 간략히 진행하며 코트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의 모습을 제시했다. 다수의 학생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의 수업 시에는 공간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자리에서 공을 반복적으로 치는 활동을 할 때 개인별로 2~3m의 자유 공간이 요청된다. 이론으로 설명한 바를 직접 시범 보였다. 특히 난타를 칠 때 유의할 점으로 ‘라켓 면이 그립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것’과 ‘라켓 길이만큼 몸 앞에서 타구할 것’을 안내했는데 두 동작을 구현하며 난타하는 장면을 시범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학생이 스윙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한 연습을 진행하는 수준(스텝 학습 직전 차시)에 실시하면 좋을 1:1 하프 코트 게임을 실제 학생을 모델로 예시로 제공하였다. 배드민턴 종목만이 가지는 예절, 매너 등을 강조하였다.

나.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한 성찰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참관한 동료 교수의 격려와 조언은 다음 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설명의 속도와 내용의 구성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체육관이라는 야외 공간에

서 촬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볼륨의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함께 있었다. 공개된 수업의 촬영을 위하여 마이크를 구비해 둔 상태였으나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문제가 있었고 혼자 말하는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이라 소리가 잘 들릴 것이라 생각하고 촬영을 강행했던 탓에 볼륨이 작게 느껴지는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선 마이크의 크기와 성능을 고려하여 장비 변경을 준비 중이다.

비대면-비접촉 상황에서의 실기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공개하게 되었다. 체육은 신체적 수행이 필수조건인 교과인 점에서 코로나 시대 변화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드민턴과 같은 네트형 경쟁 활동은 그 운영이 수영과 같은 종목만큼이나 운영이 어렵고, 배움에 대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중등학교에서 기록 도전(예. 단거리 달리기, 오래달리기 및 걷기나 컵 쌓기 활동(speed stacking)이나 동작 도전(예. 구르기, 체조, 감정 표현보다는 특정 동작의 구현으로서의 춤, 저글링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구석 배드민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즉, 배드민턴에서 기록/동작 도전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융·복합형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비접촉 배드민턴 수업의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영상 편집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영상으로 제작될 수업에 대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도 절감하는 기회였다. 특정 내용에 적합한 영상 편집(예. 자막, 배속, 음향효과 등) 기술과 이를 고려한 수업이 함께 요청되는 것이다. 영상 포털 사이트에는 배드민턴에 관한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동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으나, 모두 ‘더 잘 치기 위한 기술 증진, 연습법’에 관한 것이지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배드민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How to teach Badminton)를 다루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 영상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어 보였다. 흥미를 돋우는 것이다. 지도법을 다루면서도 학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 교수들은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의 특성과 예비교사들의 요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수업 환경, 개별 강좌의 성격과 목표 등 수업의 내·외적 변인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설계해 실행하고 있었다. 참여 교수들이 공개한 수업의 개요와 수업 공개 경험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대면 수업의 실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고 교수자들이 수업 개선과 관련해 고민하는 지점이 미세하게

다르기도 했다. 공개된 수업 중 <실과교수학습론>, <초등교사론>, <체육실기 II>는 동영상 활용 수업 진행했으나 <철학의 이해>, <창작실기 3>, <체조경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다. 동영상 활용 수업에서는 동영상의 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플랫폼의 기술적 문제가 수업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론 수업에 비해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를 담당한 교수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김동원, 김향정, 한태구, 2021: 95)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학생들의 수업 및 예체능 실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참여 교수들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를 기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강좌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했고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료 교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수업 공개와 교수법 개선 세미나를 통해 동료 교수들과 강의실 벽을 넘어 수업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업을 개선하는 데 쓰일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업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교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업 공개는 C교육대학교 교수들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데 비해 공개 수업을 참관하는 문화는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IV. 결론: C교육대학교 사례를 통해 본 교수 수업 공개 및 성찰의 의미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수업 공개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동료 교수가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는 대학 수업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해당 대학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수업 피드백을 교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신종호, 홍성연, 2013: 203).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교수가 동료 평가에 참여한다면 교수법은 물론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동료 평가 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도 동료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신종호, 2014),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과 평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제한된 사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개별 교수의 수업은 물론 교수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문화 전체가 학생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교육자들은 동료 교수들과 함께하는 수업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수업을 공개한 후 협의회와 세미나를 통해 학생과의 의사소통 방법,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성찰함으로써 대학의 수업과 수업 공개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료 평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교수의 자기 수업에 대한 분석, 수업 공개와 참관, 동료 교수들과의 협력적인 대화 등으로 이어지는 수업 공개와 성찰의 전체적인 과정은 동료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신종호, 홍성연(2013: 221-222)은 동료 평가의 효과로 전공의 교과 내용을 고려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 대학과 전공의 문화와 학습자 특성에 대한 교수들 간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동료 평가 이후에도 교육적 문제에 대한 교수들 간의 상호교류가 계속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공개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수가 스스로의 수업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C교육대학교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교사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교수들 간의 수업 공개와 참관, 성찰의 과정에서 참여 교수들은,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C교육대학교의 문화와 초등 예비교사들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동료 교수들과 수업 공개와 참관, 성찰의 과정을 함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동료 교수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수업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및 수업 일반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3개의 이론 수업(〈실과교수학습론〉, 〈철학의 이해〉, 〈초등교사론〉)과 3개의 실기 수업(〈창작실기 3〉, 〈체조경기〉, 〈체육실기 II(배드민턴)〉)을 공개하였다. 연구 기간에는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공개된 수업은 모두 온라인 수업이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수업 설계 및 시연과 관련한 실습이 필요한 수업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업이 이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수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설계 과제를 제시할 때는 템플릿을 제공함으로

써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설계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과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한 모둠별 수업 설계의 실행, 수업 설계를 적용한 수업 시연의 과제 제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한 토론 수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교수법 개선과 관련하여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웹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단계적 토론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자와 수강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도 PBL 수업이 가능하고 여러 강좌에서 PBL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기 수업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실기 수업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의 영상 콘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강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 많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그런 영상들을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예컨대 영상 포털 사이트에는 배드민턴에 관한 수많은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모두 배드민턴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이나 연습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배드민턴을 배우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나 배드민턴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다룬 영상은 거의 없었다. 교사교육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찾기 어렵다면, 교사교육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도 예비교사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집중할 수 있는 영상 강의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에서의 수업 일반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현장 기반의 실천적 배움이 필요한 강좌의 경우, 담당 교수와 현장 교사의 팀티칭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교사론>의 경우 현장 교사의 특강을 강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현장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C교육대학교의 강의에서 아동문학 작품을 활용한 융·복합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문학 관련 강좌 외에도 <철학의 이해>, <초등교사론> 등의 강의에서 그림책이 교재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창작실기 3>에서는 동시를 활용해 작곡 수업을 하고 있었다.

교사라면 누구나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하며,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맥락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수업의 의미는 계속해서 갱신될 수밖에 없다(임상훈, 유영만, 2018: 1081-1082). 코로나 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교수들은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게다가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의 교수들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수업 공개와 참관, 성찰을 함께 하면서 교수들은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은 공개된 수업을 참관한 타 전공 분야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융·복합 강좌 개발 및 운영, 교수법 및 교수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 간의 교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교수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 교수의 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초등교원 양성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이 경험하는 수업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가 대학의 교수들이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성찰하는 수업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1. 12. 31. ※ 논문 수정일: 2022. 2. 17. ※ 게재 확정일: 2022. 2. 21.

〈참고문헌〉

- 김동원, 김향정, 한태구(2021).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인식 변화 연구 - C교육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6(1), 73-101.
- 김동원, 황연주, 남현욱, 류미혜(2018). **2018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발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김미혜, 류상희, 김근호, 김수혜, 방신웅, 이재용, 정현수(2021). **(CJE2020D025) 2020년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사업**.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발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김미혜, 이혁규, 김용, 류미혜, 윤옥경, 강병직, 장지은(2019). **2019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수업 공개**. 청주교육대학교 대학발전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김영한, 오세웅(2003). 특수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공개 운영 실태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3(3), 201-218.
- 송하인(2020).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과 공개수업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초등교육연구**, 33(2), 173-202.
- 신중호(2014).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1(3), 371-398.
- 신중호, 홍성연(2013). 대학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 도입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0(1), 201-230.
- 심영택 외(2019). **교사학습공동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공동체벗.
- 엄훈(2004).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의 체험. **국어교육학연구** 19, 359-418.
- 임상훈, 유영만(2018).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공학연구**, 34(4), 1079-1112.
- 한영욱, 김미숙(2020). 혁신학교의 수업공개연구와 학생들의 학습 경험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0(2), 105-134.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A Practical Study on Teaching Disclosure by Professors in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Kim, Mi-hye¹, Ryu, Sanghee², Kim, Goun Ho³, Kim Sue Hye⁴,
Bang, Shinwoong⁵, Lee Jae-yong⁶, Jung Hyun-soo⁷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explores the experience of six professors (gender: female 2, male 4, major: Elementary Education, Ethics Education, Music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2, Practical Cours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ho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articipating in a lecture disclosure program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Since the mid-2000s, to develop teaching professionalism a culture of observing the classes of fellow professors and contemplating such classes together has been maintained at the C University of Education. Since 2018, policy studies related to the class disclosure of professors have been conducted. Furthermore, in 2020, each of six professors opened each class at least once followed by an individual conference discussing opinions on class and implications for lecture improvement, and a post-mortem seminar in the form of a meeting with all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same year, however, the majority of publicly available classes in universities were conducted onl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rocess of observing the classes of fellow professors also occurred within the new platform, where the participants confirmed that various methods, such as discussion, practical, and project-based learning classes, were applied in online classes as well. Through the disclosure of classes among fellow professors,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view their classes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such that they were able to point out areas of improvement. Moreover, they comprehensively observed the educational process of pre-primary teachers through classe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The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culture of open teaching in universities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self-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rofessors of teacher education.

Key words : teac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alism, open class, reflection on class, online class

-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tikka@cje.ac.kr (Lead author)
 2.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yush1@cje.ac.kr (Co-author)
 3.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gsmv@cje.ac.kr (Co-author)
 4.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nsmp@cje.ac.kr (Co-author)
 5.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wbang@cje.ac.kr (Co-author)
 6.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ducounsel@cje.ac.kr (Co-author)
 7.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sjung@cje.ac.kr (Corresponding author)